

남자대학생의 성지식 수준과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강 수 향(경희대학교 석사과정) · 유 계 숙(경희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자대학생의 성지식 수준과 성교육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연령,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성적매력도, 성문제 유무, 성경험 유무, 자위행위 빈도)이 성지식 수준과 성교육 요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결혼생활을 영위할 미혼남자대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25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조사시점에서 동거중인 2명과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247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성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Derogatis(1975)의 'Sexual Function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성·남성의 피임방법, 성적 특징 등 다양한 성지식에 관한 26문항의 진위형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따라 정답일 경우 1점을 부여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부터 26점까지이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3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47명의 미혼남자대학생 중 56.3%의 남학생이 성경험이 있으며, 26.3%의 남학생이 성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미혼남자대학생의 성지식 수준과 성교육 요구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성지식 수준은 26점 만점에 평균 13.94점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여성의 성적 특징에 관한 문항들로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부족한 성지식에도 불구하고 미혼남자대학생 중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5.1%에 불과하였다. 셋째, 미혼남자대학생의 연령, 본인이 지각하는 성적매력도 수준, 성문제 및 성경험 유무, 자위행위빈도는 성지식 수준 변량의 8.7%를 설명하였으며, 성적 매력도를 높게 지각하고($\beta=.13, p<.05$), 성경험이 있으며($\beta=.16, p<.05$), 자위행위 빈도가 많은 남학생일수록($\beta=.15, p<.05$) 성지식 수준이 높았다. 한편 이상의 독립 변인들은 미혼남자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미혼남자대학생들의 성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지식수준을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험, 자위행위 등 실제적인 경험으로, 중·고등학교의 형식적인 성교육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성교육에 익숙해진 미혼남자대학생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 교양강좌에 부모교육·성교육 강좌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실질적 내용이 통합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혼남자대학생들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